

“이제는 국민의 시간”...대한민국 대도약의 해 만든다



이재명 대통령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를 맞아 지난해 위기의 파도를 함께 건너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란과 혼란으로 흔들렸던 나라를 복구하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했고, 신속한 추경과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소비심리를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됐습니다. 경제성장률은 상승세로 돌아섰고, 주식시장은 코스피 4000을 돌파했으며 수출은

수도권 중심 성장 벗어나 성과 나누는 국정운영

연간 7000억달러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려와 좌절은 기대와 전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6만장의 GPU 확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여야합의로 마련된 AI 시대의 첫 예산안은 첨단산업과 중소·벤처 기업 도약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성장의 지평을 넓혔고, 미국과의 관계 협상 타결은 경제를 짓누르던 불확실성을 크게 떨어냈습니다. 한

미동맹의 진화 또한 경제 부흥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변화는 국민의 집단지성이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타운홀미팅과 국정 운영의 생중계는 소통과 투명성을 일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막 출발선에 섰을 뿐입니다. 늦은 만큼 더 빠르게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올해를 대

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안보 전반에서 도약을 이루고, 그 성과를 소수가 아닌 모두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국가의 성장만큼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섯 가지 대전환을 추진합니다.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일부 대기업 중심에서 모두의 성장으로, 위험을 감내하는 성장에서 안전이 기본인 성장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과, 병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 또한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성장 전략을 바꾸지 못하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실천과 행동의 시간입니다. 정부는 성과가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정책 집행의 속도와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당장의 지표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국민의 신뢰와 통합 위에서만 대도약은 가능합니다. 국민과 함께 걷는 국정, 책임으로 답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도약, 결국 국민이 합니다. 고맙습니다.

위기속 강한 광주, 이제 부강한 도시로 나아갈 터

강기정 광주시장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습니다. 광주는 늘 위기를 기회로,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광주가 빛났던 시간이었습니다.

12월 3일 계엄에 따른 민주주의 위기 앞에서 다시 한번 80년 광주정신을 보여줬습니다. 시민들의 나눔과 연대라는 더



큰 힘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새로운 민주 정부 탄생을 이끌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도시철도 상

부도로 개방과 KTX

호남선 증편, 복합쇼핑몰 등 해묵은 난

제들이 하나씩 해결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여름 괴물 폭우에도 신속한 대

응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이끌어 냈으며, 국가 AI 컴퓨팅센터 해남 지점이라는 위기도 미래 산업 전반에서 더 큰 기회를 만들어내며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이제 광주는 부강한 광주로 나아갑니다. AI·미래차·반도체를 삼각축으로 육

성 하는 등 이재명 정부와 함께 부강한 광주가 시작됩니다.

어떤 위기 앞에서든 포기하지 않았던

광주는, 새해에도 시민과 함께 분명히 해

낼 것입니다.

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이끌어 냈으며, 국가 AI 컴퓨팅센터 해남 지점이라는 위기도 미래 산업 전반에서 더 큰 기회를 만들어내며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이제 광주는 부강한 광주로 나아갑니다. AI·미래차·반도체를 삼각축으로 육성 하는 등 이재명 정부와 함께 부강한 광주가 시작됩니다.

어떤 위기 앞에서든 포기하지 않았던 광주는, 새해에도 시민과 함께 분명히 해낼 것입니다.

붉은 말의 기상으로 전남 대부흥 시대 열 것

김영록 전남도지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전남은 새로운 도약의 문턱에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키며, 사상 최초 국비 10조 원 시대로 함께 ‘대한민국 AI·에너지 수도 전남’으로 부상했습니다.

이 성과는 위대한 도민 여러분과 함께



일궜던 역사입니다.

이제 전남은 재생

에너지 확대와 영농

형 태양광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공공수도 에너지 개

발로 기본소득과 포용 성장을 실현하겠

습니다.

과학기술 진흥 원년을 선포해 AI·에

너지·우주항공 등 첨단기술을 선점하

고,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혁신벨트로

글로벌 첨단산업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과 국제행사 유

치, 남해안권 초광역 관광벨트 조성, 광주

·전남 광역 연대와 행정통합을 통해 전남

대부흥의 길을 열겠습니다.

붉은 말의 기상으로, 도민과 함께 전남

의 새로운 전년을 힘차게 써 내려가며, 더

공정하고 따뜻한 공동체로 대한민국의 미

래를 굳건히 떠받치겠습니다.

시민의 뜻 실현되는 진심의회 구현 역량집중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희망찬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현하를 질주하는 적토마의 기운을 받아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025년은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비상계엄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 광주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민주주의를 지켜 냈고, 슬픔의 현장에서는 눈물 어린 연대로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 광주시의회는 그 뜨거웠

던 광장의 목소리와 민생의 소망을 가슴

에 새기며 2026년의 문을 활짝 엽니다.

제9대 후반기 광주시의회는 올해, 의정

성과의 연속성과 혁신을 바탕으로 ‘시민

의 뜻이 실현되는 진심의회’에 모든 역량

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고단한 시민의 지갑과 식탁을 세

심히 살펴, 삶의 현장 구축구석에 ‘제값되

는 민생 온기’를 채워 넣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안전이 일상이 되는 광

주 건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에

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

과 성원 부탁드리며, 현장에서 시민과 소

통하며 행동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소통과 협치로 신뢰받는 지방자치 실현에 주력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희망의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이 전남 대도약을 향한 희망의 원년이자 회복·성취·변화의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12대 전남도의회는 도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중심 의회를 최우선에 두고, 서민과 취약계층을 촘촘히 살피며 농어업인·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현장에서 체



감되도록 예산과 정책 집행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소멸과 인구위기에 정면 대응해 청년이 머물고 아이 키우기 좋은 전

남을 만들겠습니다. 맞춤형 인구정책과

청년특구 임법, 전남형 만원주택·공공산

후조리원·지역활력타운 등 정주 기반 확

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유지한 AI 컴

퓨팅센터, 글로벌 데이터센터, 인공대양

연구시설 등 국가 선도사업의 성공을 뒷받

침하고, 이차전지·RE100산단 등 미래산

업 육성과 철강·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

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넓히겠습니다.

기후위기와 재난에 대비한 예방 중심의

안전정책을 강화하고, 산불·산업현장 안

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소통과 협치로 신뢰받는 지방자치를 실현

하겠습니다.

“기본교육 중심…다양한 실력 토대 다질 것”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지난해 광주교육은 굵직한 열매들을 수확한 한해였습니다.

10년 만에 수능 만점자가 배출되는 경사가 있었고, 진로진학지도사례 ‘대상’, ‘수학교육상’ 수상, 2년 연속 시도교육청 ‘최우수’ 평가 등의 기본 소식을 전했습니다.



2026년 광주교육은 ‘기본교육’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력

의 토대를 다질 것입니다.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경제선지능 학

생 지원, 미래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광주

형 마이스터고 예비학교, ‘다 함께 책으

로’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의 성장을 돕겠

습니다. 또 교육활동 보호와 위기학생 지

원을 강화하고, 인성교육과 사이버폭력

예방으로 따뜻한 학교문화를 만들겠습니

다. ‘꿈드림미’ 확대를 통해 단 한 명의 아

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광주 학생들의 글로벌 교육 프

로그램과 민주주의 역사 교육을 강화하

고, AI교육원과 지능형 과학실 구축으로

디지털·미래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2026년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 여

러분께 배움의 힘을 드리는 광주교육이

되겠습니다.

지역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글로벌 전남교육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참하고 따뜻한 기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전남교육은 2026년을 ‘글로벌 시대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기본을 튼튼히 다지되 AI로 날개를 달고, 전남의 정신 위에 다양성이 살아 숨 쉬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초·중·고를 잇는 AI 리터러시 교육과 AI 연계 교실, 토론·탐구 중심 수업으로 미래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전남교육 AI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학생 개별 성장을 지원하며 기초

학력 책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전남의 문화자원을 교육과 연결해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공생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경제고과 AI 특

화 마이스터고 육성, 직업계고 재구조화

로 전남에서 배우고 정주하는 교육 생태

계를 만들겠습니다.

전남미래세계고 개교와 국제교류 확대

로 글로벌 교육의 모델을 세계와 공유하겠

습니다. 아울러 2026년을 ‘청림 원년’으로

삼아 신뢰받는 공교육의 기준을 세우겠

습니다. 글로벌 전남교육이 지역과 함께 세

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희망찬 새아침!!

늘푸른 소나무 처럼
정론직필과 불편부당의
광남일보가 되겠습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광남일보 임직원 일동

